

다니엘서 - 번호 147

미국 정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종교 운동의 역할: 팻 로버트슨에서
기독교연합에 이르기까지

Jeff Pippenger
2024-03-20

우리는 지난 글을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마무리했다:

"심령술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 이들을 대적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영들의 전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일요일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오류를 깨닫게 하시려 한다고 선언하며, 국법이 하나님의 법처럼 순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큰 악을 탄식하며, 타락한 도덕 상태가 일요일의 모독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종교 교사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큰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대쟁투, 589, 590.

'도덕이 타락한 상태는 일요일의 훼손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은 미국에서 태양 숭배를 강제하는 데 이르게 되는 역사 속 하나의 이정표이다. 미국의 텔레비전 복음전도자이자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CBN)와 크리스천 코얼리션의 설립자인 팻 로버트슨은 1988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다. 로버트슨의 선거운동은 보수적 기독교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그의 복음주의 신념과 부합하는 사회적·도덕적 이슈를 옹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89년 마지막 때, 마지막 여덟 명의 대통령 가운데 첫째의 역사 속에서, 크리스천 코얼리션의 지도자이자 창립자가 대통령에 출마했다. 레이건의 대통령사는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의 역사를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하나님의 심판은 The Great Controversy에서 앞서 언급된 구절을 성취하고 Christian Coalition의 활동과 병행되는 환경을 곧 만들어 낼 것이다. Christian Coalition은 정권을 쥔 자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화이트 자매가 지적한 도덕적·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등장했다. 레이건 시대의 Christian Coalition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있을 유사한 운동을 대표한다. 예언적으로 볼 때 Christian Coalition은 1880~1890년대 블레어 법안과 관련된 일요일법 위기 동안의 National Reform Movement에 의해 예표되었다. National Reform Movement는 1888년에 결성되었고, 화이트 자매는 자신의 저술에서 그 운동을 특별히 다루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세상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투쟁이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40년이 넘도록 임박하다고 선포해 온 사건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벌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 문제가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문제는 국가적 관심사이자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국면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라는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수행해 왔는가?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려는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조치가 가져올 결과에 눈이 멀어 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성경적 안식일의 요구와 일요일 제도가 서 있는 거짓된 기초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 이들도 많다. 종교 입법을 지지하는 어떤 움직임도, 실상은 오랜 세월 양심의 자유와 끊임없이 싸워 온 교황권에 대한 일종의 양보 행위다. 일요일 준수는 소위 기독교 제도로서의 존재 자체를 '불법의 비밀'에 빛지고 있으며, 그것을 강제하는 일은 로마주의의 바로 그 초석인 원칙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그렇게 저버려 일요일법을 제정하게 될 때, 개신교는 이 행위로 교황주의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다시 노골적인 전제정치로 도약할 기회를 간절히 엿봐 온 그 폭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국가 개혁 운동은 종교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완전히 발전하면 과거 시대에 만연했던 것과 같은 불관용과 억압을 드러낼 것이다. 그 당시 인간의 회의체들은 신의 특권을 가로채어 전제적 권력 아래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그들의 명령에 반대한 이들에게는 투옥과 추방, 그리고 죽음이 뒤따랐다. 만일 교황주의나 그 원리가 다시금 입법을 통해 권력을 얻는다면, 대중적 오류에 굴복하여 양심과 진리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향한 박해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것이다. 이 악은 실현 직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보여 주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겠는가? 그들을 아무 경고도 없이 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앞에는 인간의 법에 의해 무효화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투옥과 재산의 상실, 심지어 생명 자체까지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지속적인 투쟁이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적 지혜는 평화와 조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라의 법에 걸로 순응할 것을 종용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성경을 근거로 그러한 길을 권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나 옛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했을 때, 당국자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메시지를 증거하였다." 증언, 제5권, 711-713.

하나님의 심판은 미국 내 사회·경제·종교적 영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공공 도덕의 부흥을 촉구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는 환경을 곧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1989년에 종말의 때를 표시했던 대통령의 역사에서도 다시 한 번 나타났던 바와 같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도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화이트 자매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위험들을 보여 주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흠 없이 설 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 중대한 사안을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맞닥뜨리도록 내버려 두고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보여 준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그런 빛이 없었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 본 적도 없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자여, 이 글들이 보여 주는 빛에 대하여 당신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글들에서 민주당의 '용' 권세, 공화당의 '거짓 선지자' 권세, 교황권, 이슬람과 라오디게아적인 재림교회, 그리고 문자적 이스라엘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권력자들에 의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겠지만, 그것들은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으로 확립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메시지이며, 그 구절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증가하고 그 빈도가 더욱 격화될 것임을 외치고 있다.

예언적 관점에서 볼 때, 1989년에 끝의 때가 도래하기 직전의 역사 속에서 결집한 크리스천 코얼리션은 1880년대와 1890년대와의 단순한 평행을 넘어서는 더욱 중대한 적용을 지닌다. 우리가 방금 인용한 화이트 여사의 그 문단에서 그녀는 사탄이 세계를 포로로 삼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강신술을 지목하고, 이어서 그가 행할 기적들에 관하여 언급한다.

1988년 선거 이후, 즉 크리스천 코얼리션의 등장 이후, 용의 영역과 짐승의 영역과 거짓 선지자의 영역에서 사탄적 이적의 엄청난 현현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을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그것들이 미국에서 곧 제정될 일요일 법령 이후에 사탄이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도래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가톨릭계에서는 1990년대에 전 세계가 소위 성모 마리아의 발현과 더불어 성인상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기적, 하늘에 나타나는 발현의 기적,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꽃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일, 그리고 그 밖의 터무니없는 사탄적 기적들을 지켜보았다. 그 시기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빚어낸 망상에 이끌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거 순례에 나섰다. 이를 다룬 책들이 쓰였고, 기자들이 취재했으며, 타임과 뉴스위크 같은 잡지는 이를 표지에 실었다.

용의 영역에서 인도의 힌두교 신상들은, 그 입에 갖다 댄 숟가락이나 잔에 담긴 음료 제물을 마심으로써, 사탄적 기적을 현시하였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애굽의 개구리 떼처럼 나라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BBC 텔레비전 뉴스가 이 현상에 관하여 논평을 내보냈고, 방송에 나온 BBC 기자가 덧붙이듯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내일 우리가 런던 박물관에 가서 힌두교 신상 하나에 우유 한 잔을 바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 날 저녁 뉴스는 같은 기자가 런던 박물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그는 큰 힌두교 신상에 우유 한 잔을 바쳤다. 그 잔이 신상의 입술에 닿자, 우유가 즉시 신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메리카 원주민 예언의 영성 전통에서, 'Miracle'로 알려진 흰 들소가 1994년 8월 20일 위스콘신주 제인즈빌 근처 데이브와 벨러리 하이드의 농장에서 태어났다. Miracle은 흰 털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녀의 탄생은 일부 사람들에게 아메리카 원주민 예언의 성취로 여겨졌다.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에서 흰 들소의 탄생은 신성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지며, 일치, 평화, 영적 쇄신을 상징한다. Miracle은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적 의미의 상징이 되었다. 흰 들소 예언의 연원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영성적 종교에서 가장 신성한 성물과 직접 연결되는데, 이는 흰 들소에 관한 최초의 이야기에서 'piece pipe'가 그 문화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 배교한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의 영역에서, '거룩한 웃음' 운동(일명 '토론토 블레싱')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현재 '캐치 더 파이어 토론토')에서 1994년 1월에 시작되었다. 존과 캐롤 아낏 목사 부부가 인도한 일련의 부흥 집회 기간 동안, 회중들 가운데서 통제할 수 없는 웃음의 현상이 떨림, 울음, 쓰러짐, 동물을 흉내 내거나 동물 소리를 내는 것 등 다른 현상들과 함께(종종 '성령에 쓰러짐' 또는 '주 안에서 취함'으로 일컬어진다)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참석자들은 웃음과 다른 현상들을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돌렸고, 그 결과 그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거룩한 웃음'이 사용되었다. 토론토 공항 빈야드 교회의 부흥 집회는 전 세계의 관심과 방문객을 끌어모았으며, 그로 인해 이 운동이 다른 교회들과 공동체들로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그 웃음을 체험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왔고, 그들이 본교회로 돌아가면 그 교회들에서도 종종 동일한 악령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곤 했다.

Pat Robertson은 1960년에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CBN)를 설립했다. CBN은 기독교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최초의 텔레비전 네트워크 중 하나였으며, 미국에서 기독교 방송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년 동안 CBN은 텔레비전, 라디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미디어 조직 중 하나가 되었다.

1988년 그는 기독교연합을 설립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그의 신념은 국가개혁운동과 주일연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단체 모두 1888년에 시작되었고, 기독교적 원칙에 근거한 다양한 사회 개혁을 옹호했는데, 그 내용에는 금주, 여성 참정권, 그리고 안식일(일요일)을 휴식과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 운동은 복음주의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성경적 원칙에 의해 이끌어지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자 했다. 로버트슨은 국가개혁운동과 주일연맹이 표방한 것과 동일한 원칙을 대변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리젠트 대학교도 설립했다.

팻 로버트슨은 윌리엄 밀러가 그토록 대담하게 반대했던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게 1977년에 리젠트 대학교를 설립했다. 가톨릭교와 배도한 개신교는 사탄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을 사용하며, 이는 거룩하지 않은 여러 열매 가운데 하나로 예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시기 전에 천 년 동안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낳는다. 로버트슨은 자신의 대학교가 성경적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정부를 운영할 남녀를 훈련한다고 믿는다. '리젠트'라는 용어는 통치자나 군주가 나라 밖에 있을 때 그를 대표하거나 대리로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989년의 '끝의 때' 이전, 늦어도 1960년까지는, 1888년에 일요일 법 제정을 추진하던 단체들의 현대판 대응 단체들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였다. 1989년 이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종교적 영역에 속한 세 요소 모두가 사탄적 현현으로 인해 뒤흔들렸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과 동일시하시며, 다니엘 11장 40절의 '끝의

때'인 1989년은 41절의 임박한 일요일 법으로 종결되는 예언적 기간을 개시한다. 그 일요일 법이 도래할 때, 사탄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기적과 치유를 동반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이 시작된다.

그 예언적 기간을 시작시키는 역사는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배도한 개신교 운동의 한 활동을 지목하며, 이는 그 기간의 시작인 1989년에 예표되었다. 1989년에 '철의 장막'이라는 '벽'이 무너졌고, 이 기간의 끝에는 '정교분리의 벽'이 무너진다. 그 기간의 시작은 마지막 여덟 명의 대통령 중 첫 두 명을 가리킨다. 시작은 교황권이 소련에서 무신론이라는 적을 극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마지막은 교황권이 미국에서 개신교라는 적을 극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시작은 그 여덟 대통령 중 첫 번째(공화당원)가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것을 가리키며, 끝은 그 여덟 대통령 중 마지막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것을 가리킨다. 그 첫 대통령은 그 벽을 무너뜨리는 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마지막 대통령은 그 벽을 세울 자로 이해된다.

현대 국가 개혁 운동은 1960년에 시작되어 1989년의 끝의 때에 이르렀다. 선거 이후에 사탄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일요일 법령 이전에 국가 개혁자들의 마지막 현현이 다시금 정치적으로 고개를 들 것이다. 일요일 법령의 때에는 사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가 이른다. 일요일 법령에 앞서, 예언적 필연으로, 심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미국의 국가적 번영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적 필연으로 그 심판들이 너무도 엄중하고 두려워서, 최종적 국가 개혁 운동, 곧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그 심판들의 이유를 그들이 주의 날이라 부르는 것을 모독하는 시민들로 지목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 백성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무기력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없다. 그들은 그분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상황에 깨어 있지 않으며 임박한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음과 합심된 행동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셋째 천사의 특별한 사역은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오늘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기를 뜻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행동으로 나설 때가 되었지만, 그들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 개혁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촉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 상황을 즉시 알아차리고 이러한 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힘써야 했다. 우리 백성에게서 이 시대에 그들이 필요로 한 바로 그 현재 진리의 빛이 감추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그 기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개혁 운동을 어떤 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 그것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과는 별개의 문제들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라고까지 느꼈다. 주께서 이 시대를 위한 바로 그 기별을 이처럼 해석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시기를.

사람들은 현재의 위험에 대해 일깨워져야 한다. 파수꾼들은 잠들어 있다. 우리는 수년이나 뒤쳐져 있다. 수석 파수꾼들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시급한 필요를 느끼게

하라. 그래야 그들에게 주어진 위험을 알아볼 기회를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회의의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을 위해 대열에 서지 않는다면, 교회들은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파수꾼이 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나팔에 분명한 소리를 내면, 대열에 선 사람들은 그 경고를 메아리치고, 모두가 싸움을 준비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너무도 자주 지도자는 머뭇거리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실수가 있을지 모른다. 잘못된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바로 그의 그 머뭇거림과 불확실함이 이렇게 외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흥분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종교 개정안 문제에 대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다. 이 논란은 모두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부인하고, 교회들을 일깨우도록 의도된 경고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파수꾼의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백성들은 싸움을 준비하지 않는다. 파수꾼은 자신의 머뭇거림과 지체로 인해 영혼들이 멸망하도록 방치되고 그들의 피가 그의 손에서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삼가라.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우리 땅에 주일법이 제정될 것을 예상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움직임이 바로 눈앞에 닥친 지금, 우리는 묻는다. 과연 우리 백성은 이 일에 있어 그들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우리가 기치를 높이 들고 종교적 권리와 특권을 중히 여기는 이들을 앞으로 불러내는 일을 돕지 못하겠는가?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한 자들이 압제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짓밟히는 동안 침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는가?

개신교계가 그 태도로 로마에 양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분발하여 사태를 이해하고 우리 앞에 놓인 투쟁을 그 진정한 의미에서 바라보자. 이제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여 이 시대를 위한 현재의 진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자. 예언적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참된 개신교 정신을 일깨우며, 오랫동안 누려 온 종교의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에 대한 자각으로 세상을 깨우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끝이 가까웠으니 깨어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지나가는 때 시간은, 머지않아 우리 앞에 펼쳐질 위대한 장면들에서 역할을 하도록 이 땅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분주한 활동의 때이다. 우리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이 지나가는 순간들이 영원과 관련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영혼들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사망으로 빚어 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는 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정신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든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의 구원은 물론 다른 영혼들의 운명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준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반대가 여러분에게 가해질 때에도 굳건히 서게 할 그 강렬한 열성, 그 경건과 헌신을 여러분은 갖추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나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때가 이르면 여러분은 공의회들 앞에 불러 나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진리의 입장은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많은 이들이 허비하고 있는 시간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에 바쳐져야 합니다." 증언들, 제5권, 714-716.